

양돈농장 컨설팅에 필요한 요소들

고 상 역 수의사
(주)선진브릿지랩

컨설팅이란? 의미상으로는 어느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그 분야에 대한 상담 및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은 각계에서 다양한 컨설팅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돈업계에서도 농장경영컨설팅, 수의질병컨설팅, 환기시설컨설팅이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컨설팅 분야가 점점 세분화 되고 전문화 되고 있다.

1. 농장컨설팅 발생 배경 및 현황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양돈농가의 사육형태는 소규모의 자가사육시스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농장주 한 사람 또는 경리 담당자 한 사람이 농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육규모가 커지고 사육시스템도 다양화 되었고, 환경적인 제한요소들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다. 이런 복잡한 사육형태 하에서는 예전처럼 농장주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서 그러한 전문분야의 일들을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위탁 또는 의뢰를 하기 시작하였고,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농장이 필요한 전문지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발전하여 농장에도 컨설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에도 국내 양돈환경에서 농장경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는 농장은 드문 것이 사실이며 단지, 위에서 언급한 생산단계의 한 분야별로 농장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양돈농가에서도 농장에 맞는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영역이 농장의 경영 전반까지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실시 중이며, 많은 수의 농가에서 참여하고 있다.

필자도 농장에 사양관리와 수의질병 부분의 컨설팅을 양돈농가에게 하고 있다. 컨설팅을 하면서 농장에 더 많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를 적어 보았다. 농장에 컨설팅이 적용되려면 농장과 컨설턴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자.

2. 농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

먼저 농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행동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농장에 어떠한 컨설팅이 필요한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농장의 재무·회계분야인지, 생산관련인지, 질병문제인지, 어떠한 것이 지금 내 농장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농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에 제일 좋은 것은 농장의 기록 현황들이다. 농장의 재무·회계 기록, 농장의 생산 기록들이 농장의 문제점을 나타내준다.

따라서 농장의 모든 사항들을 반드시 전산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하다. 선정된 컨설턴트를 100% 신뢰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농장의 모든 정보를 선정된 컨설턴트에게 제공해야 한다.

위에 첫번째로 언급한 내용 중 농장의 기록들을 컨설턴트와 함께 공유하여야 하며, 컨설턴트가 요청하는 자료 및 질문에 사실을 이야기 하여야 한다. 필자가 방문한 농가들 중 한 곳의 농장에서 제공한 정보와 농장의 실제 생

농장에 컨설팅이 적용되도록 농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행동을 살펴보면, 농장에 어떠한 컨설팅이 필요한가를 파악하여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줄 전문 컨설턴트를 선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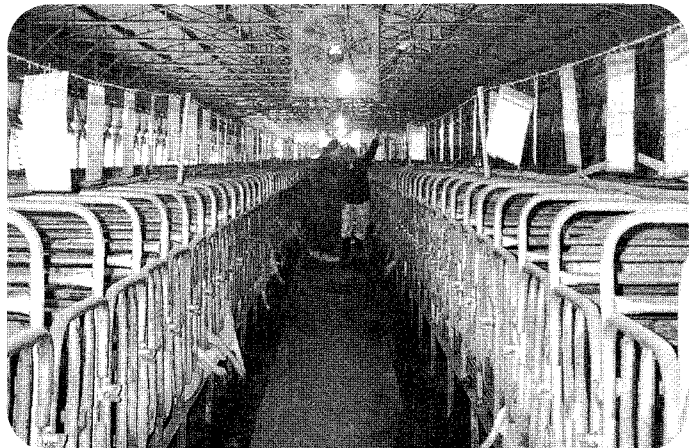
아울러 농장의 모든 정보를 선정된 컨설턴트에게 제공해야 하며, 컨설턴트가 농장에 제시하는 제안이나 조언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농장에 문제가 생겨 외부 전문가를 불렀으니 발생된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은 접어두어야 한다.

기록이나 수기록이더라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록만 남겨도 괜찮지만 더 좋은 것은 기록을 분석하여 문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산 현황이 다른 농장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당혹스럽고 농장주에게 모든 것을 질문해 확인하다 보니 농장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해줄 전문 컨설턴트를 선정하여야 한다.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누구를 선정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농장에서 방문 요청시 즉시 농장으로 컨설턴트가 방문하면 제일 좋으나 일반적으로는 농장과 컨설턴트의 이동 거리가 있고 일정 조정을 해야 하므로 농장 방문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 전문가로부터 각종 사양·환경관리 컨설팅을 받고 있는 모습

컨설턴트는 농장의 전반적인 기록을 가지고 농장의 모든 사람들과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농장직원과의 대화와 농장 점검 후 확인된 문제를 농장측에 제시하여야 하며, 그 해결책 또는 개선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시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컨설턴트는 일회성 방문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방문 계획을 세워 농장의 생산성을 높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에서는 심문 받는 것처럼 느껴져 농장의 문제가 제대로 파악될 수 없었던 기억이 있다.

컨설턴트를 신뢰하지 못하면 농장의 컨설팅은 시작 안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넷째로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

“내 농장일은 내가 제일 잘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컨설팅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컨설턴트가 농장에 제시하는 제안이나 조언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농장에서 실현 불가능한 조언 같은 경우에는(예 : 돈사 신축) 입장 조율이 있을 수 있으나, 사육 시스템중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 같은 실행 가능한 조치 사항들은 이행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로는 너무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농장에 문제가 생겨 외부 전문가를 불렀으니 발생된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은 접어두어야 한다. 돼지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 문제점이 개선되었다고 해도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개선된 결과가 나타나므로 너무 재촉하지 말아야 한다.

3. 컨설턴트가 가져야 할 수칙

컨설턴트가 가져야 할 수칙을 알아보자.

컨설턴트는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에 발생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문제점을 농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제시한 문제의 해결책, 또는 개선책을 농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사후에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컨설턴트가 가져야 할 수칙을 나름대로 적어 보았다.

첫째로 농장의 전반적인 기록을 가지고 농장의 모든 사람들과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의 낯두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 되짚어 볼 수 있으며 문제를 농장직원과 컨설턴트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만 농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문제가 확인되면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이며, 문제가 언제 나타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살아있는 돼지들에게 문제가 발생되면 발생의 시작은 문제가 나타나기 전부터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며 문제발생

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질병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게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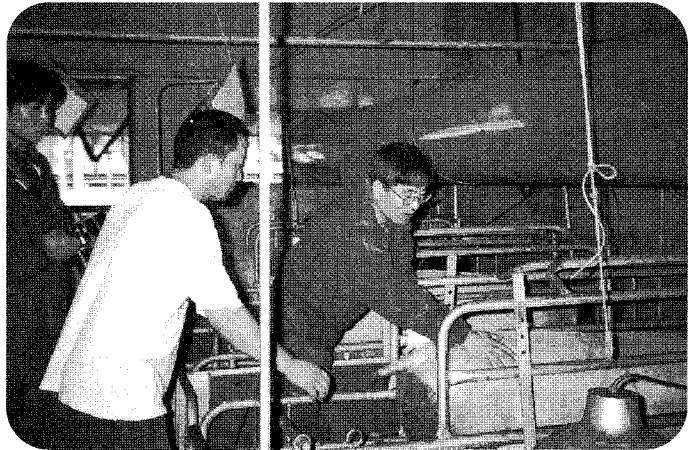
두 번째로는 농장직원과의 대화와 농장 점검 후 확인된 문제를 농장측에 제시하여야 하며, 그 해결책 또는 개선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때에는 한꺼번에 풀어나가는 것보다 하나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더 좋은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조언과 제안을 한번에 하면 시행하기 전에 농장 직원들은 미리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문제는 처음 것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향을 많이 보아 왔다. 그리고 문제의 개선점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야 하며, 개선결과가 어느 정도 시점에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반드시 시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다른 문제에 대하여 접근을 하고,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잘못 판단되었는지 또는 실행에 있어



● 컨설턴트는 농장이 정상적인 생산상태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실수는 없었는지 되짚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컨설턴트는 농장이 정상적인 경영 상태 또는 생산상태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농장마다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존재하며, 그렇지 못하여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농장의 상황을 잘 확인하여야 하며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제시하고, 관리가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 주어야 한다.

컨설턴트는 일회성 방문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방문 계획을 세워 농장의 생산성을 높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내 농장에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농장의 컨설팅진단을 의뢰하도록 하자. **양돈**

본지 캠페인

내가 남부하는 자조금으로 양돈산업 안정 및 발전 이룩어낸다.